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학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레딩이라는 시골에 위치해있음. 너무 시골이라 미국 친구들 자가용이 아니면 외출이 불가능해서 매우 불편함. 숙소는 미국 친구와 2인 1실로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함. 대학 크기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같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은 한정적이라 학교의 규모는 그닥 상관없음.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굉장히 짜고, 같은 종류의 과일을 3주 내내 먹었음.</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 정말 웹디자인만을 배움. 하지만 선생님이 코딩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정도 기초는 할 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신것 같음. 내가 문과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 혼자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함. 과제는 없고 수업 준비할건 딱히 없었음.</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 여러 활동들을 하긴 하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너무나 짧음. 땅이 넓어서 이동시간으로 다 허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관광객으로써는 너무나 아쉬웠음. 지금 돌이켜보면 자유시간이 주어질때마다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뿐임.</p> <p>그리고 공장 견학을 갔던 날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헬멧에 보안경에 가이</p>

	<p>드분의 설명이 들리는 헤드셋까지 쓰고 2시간 가량을 견학했었는데, 정말 힘들고 의미없는 활동이었음. 그거 말고는 나쁘지 않았음.</p> <p>가는곳마다 기념품샵은 꼭 들리니까 기념품 살 사람들은 꼭 돈을 가지고 다니길.</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 습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햇빛이 강함. 선글라스를 가져가면 좋을것같고 썬크림은 정말 필수임. 어디를 나가던지 꼭 발라야 함.</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 정말 안전함. 물론 밤 늦게 돌아다닐 곳도 없긴 하지만 캠퍼스 안에는 보안요원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다니시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안은 안전함.</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 샤워시설이 정말 별로였음. 약간 낙후된듯 싶었음. 그리고 일단 사람 수에 비해 샤워부스가 4개뿐이라는 점이 정말 불편했음.</p> <p>그리고 방음이 정말 안됨. 새벽에 누가 떠들기라도 하면 그날은 잠을 못 잠.</p> <p>그리고 딱 하루 비가 갑자기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학교를 비롯한 지역 사회가 잠깐 정전이 됐던 날이 있었음. 열악한 시설에 정말 놀랐음.</p> <p>그리고 개구리가 정말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개구리를 볼 수 있음. 특히 새벽에는 개구리들이 기숙사 창문에 웅기종기 붙어있음.</p>
식사	<p>학교식당 (o) 외부식당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 학교식당에서 주로 먹었음. 하지만 메뉴가 매우 짧은 주기로 반복되었</p>

	<p>고, 같은 과일이 매 끼 나왔으며, 간이 너무 세서 힘들었음. 외부에서 사 먹은 날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음식 가격이 비쌌고 역시나 음식들이 짠음. 그냥 최대한 공항에서 안 걸릴만한 한식을 많이 가져가거나 현지에서 마트에 가게 된다면 햇반이나 컵라면을 많이 사놓는 것을 추천함.</p> <p>주말에는 식당에서 밥을 안줘서 개인 음식을 먹거나 공용 공간에 있는 간식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간식들은 없을때가 정말 빈번하기 때문에 마트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개인 먹거리를 무조건!! 많이 사들 것!!!!</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 자가용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음. 자가용 이용시 최소 10분거리에 상권이 있음.</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 경비	700달러	
ESTA발급	14달러	
보험료	약 28,000원	
항공료	약 150~160만원	
합계	약 2,4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1. 썬크림 챙길 것
2. 외국 친구들 줄 선물 챙겨갈 것
3. 편지지 가져가면 좋음

4. 공항에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한식을 최대한 많이 챙겨갈 것 (중요)
5. 생각보다 큰 돈 쓸 일이 많이 없었음. 환전은 많이 안해도 될 듯
6. 운동화, 샌들, 슬리퍼(쪼리) 신발은 3개정도 가져가야 좋음.
7. 긴팔 옷을 많이 가져갈 것. 겉옷같은거!! 생각보다 실내 활동이 많은데 정말 추움.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일단 학교가 너무너무 시골이라 위치가 정말 별로였음. 그래서 3주 내내 수업이 끝나면 할게 없어서 괴로웠음. 미국 친구들한테 자꾸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아무리 내가 주유비를 준다고 해도 애들을 귀찮게 하기가 미안했음.

나는 미국에 가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비추천함. 나도 이런 경우였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개인여행을 가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음. 너무 시골이라 막말로 여기가 미국인지 신창인지 모를정도임. 그나마 신창은 지하철이라도 있지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음.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일정이 딱 하루 있는데,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정말 1~2시간 남짓임. 갔다 왔다고 말하기도 민망함. 뭘 하던지 서둘러서 다녀야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음. 샌프란에 간다고 기대하면 많이 실망할 것 임.

그리고 웹디자인을 배웠다고 하기도 뭐한 정도로 지식이 어정쩡하게 남아있음. 물론 수업시간에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무슨소리인가" 하다가 3주가 지나가버림. 정말 웹디자인이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고민한다면 차라리 학원에 가시길.

그리고 전화가 안터지는 지역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음. 답답했음.

음식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학교 식당 음식의 경우에는 정말 살기위해 먹었음. 매 끼니 같은 샐러드와 과일이 나옴. 그리고 짜디 짠 피자 한조각이 밥인 경우가 빈번했음.

하지만 가서 만난 외국 친구들은 정말 다 좋았음. 좋은 사람들을 만난건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였음.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가고싶다! 하는 사람들은 딱히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기 전에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음.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undial Bridge



4th of July



Shasta Dam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Burney Falls